춘천 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



춘천홀리클럽

21C 한국성시화운동의 발상지, 홀리클럽운동의 진원지

춘천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

발 행 일 | 2011. 5. 27

발 행 자 | 이학규
발 행 처 | 춘천홀리클럽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74-3
전　　화 | 033) 256-1260
팩　　스 | 033) 257-1260

제　　작 | 도서출판 진흥(02-2230-5155)

편집위원
김영명 한명수 김용배 김영관 홍재기

※비매품



성시화운동을 꿈꾸는 분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이학규 장로(춘천홀리클럽 회장)

춘천은 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운동이 처음 시작된 도시입니다

1972년도 춘천실내체육관에서 김준곤 목사님에 의해 처음으로 성시화운동이 선포됐으며 1996년 춘천지검 검사장이셨던 전용태 장로님과 춘천지방법원장 양인평 장로님, 그리고 초대회장 조남진 장로님에 의해 홀리클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천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시화운동이 오늘에 이르기 까지는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국내 · 외적으로 70여 개 도시에서 성시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시화운동에 거시는 기대가 크시다고 믿습니다. 춘천홀리클럽은 성시화운동의 진원지인 춘천부터 성시화운동의 모델 도시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기도했으며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이 걸어온 발자취와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의 과제들을 정리하여 정보자료를 제공해 보려고 힘을 썼습니다.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고 성시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어른들께와 이 책이 편집되기까지 수고하신 편집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92년도부터 성시화운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빠짐없이 사진기에 담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편집책임까지 맡아 해주신 김영명 장로님과 사진자료를 제공해 주신 홍재기 권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격려메시지



「춘천성시화 운동과 홀리클럽」

– '72 춘천성시화대회 참가, '96 춘천홀리클럽 창립–

전용태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세계홀리클럽연합회 대표회장

성시화운동은 타락한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세상을 만드는 영적인 구시(救市), 구국(救國), 구세(救世)운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6년 전인 1885년 암울했던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짧은 기간 동안에 25퍼센트의 복음화와 민주화, 산업화의 놀라운 축복을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나라와 세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을 통하여 성시화운동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범죄한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거룩한 도성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운동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서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1530년대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성시화운동을 전개한 것이 원형이 되어 18세기 영국 존 웨슬리의 홀리클럽운동 19세기 미국 D. L. 무디의 시카고 도시거룩운동으로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는 이 도시거룩운동이 한 도시에서만큼은 전 교회(Whole Church)가 전 도시(Whole City)에 전 복음(Whole Gospel)을 전하는 구전운동으로 구체화되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받아야 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안 받으면 사망이요 안 전하면 화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시화운동은 복음을 전파하되 전하는 자가 전 교회여야 하고 받는 자가 전 시민이어야 하며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부분적인 복음이 아닌 전 복음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성시화운동은 이와같이 신구약 성경과 그 이후 인류의 역사 속에 내려오

고 있는 도시거룩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3전운동으로 구체화되어 한국 대학생 선교회(C.C.C.) 총재 김준곤 목사님에 의해 제네바와 같은 호반의 도시 춘천을 선택하여 1972년 한국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각 도시 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이 성시화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국내 50개 도시, 국외 20개 도시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조직이 처음부터 동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목사님 중심의 성시화운동본부와 평신도 중심의 홀리클럽이 이시적(異時的)으로 조직되어 오다 보니까 그 하는 일이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성시화운동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시화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근에 와서는 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 클럽이 따로 따로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성시화운동본부로 통합되어 목회자 리더십과 평신도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은 아주 복음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1972년 8월 최초의 춘천성시화 도시전도대회 때 성시화의 사명을 받은 C.C.C. 출신 아내와 함께 참여하였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1991년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보다 4년 전인 1987년 아내의 갑작스러운 난소암 선고로 아주 큰 수술을 받고 아내와 한 세 가지 약속 때문에 일대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다가 춘천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신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라는 말씀에 따라 아내의 간절한 소원으로 하게 된 약속이란 '주일성수, 매일전도, 매주 성경공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자주 많이 하던 골프, 술, 담배가 자동적으로 끊어지고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는 데 전심 ·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울이나 춘천에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다보니까 아내의 질병은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게 호전되어 현재는 완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완쾌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제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믿어지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후 18년간 함께 교회는 나갔지만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벌을 받아야 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지지 말고 그냥 믿는 것이 복이라

고 하지만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대 아내의 큰 수술과 고통을 통하여 세 가지 약속을 지키다보니, 특히 집중적인 성경공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른바 이신득의(以信得義)의 원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전도한 분들과 당시 김기수 검사장을 비롯한 경찰서장, 2군단장, 강원일보 전무, 강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들과 성경공부를 관사에서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기관 · 단체장) 성경공부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광주고등검사장, 부산고등검사장, 전 포항시장 등 여러분들이 각 도시에서 리더스홀리클럽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5년 다시 춘천검사장으로 재차 발령이 나서 개인전도와 기관장 성경공부에 계속 집중하여 소강상태에 있던 성시화운동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 후 춘천법원장으로 부임한 양인평 장로와 함께 전도한 100여 분과 함께 성시화운동을 하기 위한 요원으로 1996년 6월 8일 전국 최초의 춘천홀리클럽을 만들었고 곧이어 1996년 9월 19일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성시화운동은 현상을 유지하는 기득권 운동이 아니라 잘못된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영적인 개혁운동입니다.

그러면 그 개혁의 대상은 전 도시(Whole City)입니다. 전 도시라 함은 한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하는 법제와 사람들이 의존해 살고 있는 땅, 즉 자연환경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시화운동에서는 우선 그 도시의 복음화율, 비성경적인 나쁜 법제, 나쁜 조례 등이 없는지, 자연환경의 파괴나 오염상태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시화운동본부마다 도시 통계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것을 나쁘다고 교육하거나 설교하면 일정한 경우에 처벌(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의 움직임이 특정 정당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교회나 성시화운동본부에 있는 것입니다.

성시화운동의 개혁의 내용은 전 복음화(Whole Gospel)입니다. 복음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부정부패, 빈곤, 질병을 치유하는 성결화와 복지화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도시마다 복음화율, 시민들의 청렴도, 정직도, 친절도

등 성결화율과 범죄 · 부패 · 빈곤 · 질병지수를 파악하여 이를 치유하는 복음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성시화운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교회의 기능과 국가의 기능을 보충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는 전 교회(Whole Church)입니다. 전 교회라 함은 예수를 믿는 나 자신부터 개혁하여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내 집부터 내 교회부터 내 직장부터 내 지역 사회부터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회개한 요나처럼,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는 운동입니다.

성시화운동의 목표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 전국 246개 시군을 성시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이 세계선교민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있지만 신앙인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시화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지상명령성취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구석구석에 임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운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성시화운동은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자살 · 이혼 · 낙태 · 저출산 · 마약 · 폭력 · 살인 · 범죄와 부패를 추방하는 꼭 해야 하는 필수 경건운동입니다. 성시화운동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필성운동입니다. 이 운동으로 스위스는 지금도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영국은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공명선거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나라를 만들었으며, 피의 혁명 대신 무혈혁명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성시화운동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복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영성강화와 가정 · 자녀 · 기업 · 건강의 모든 복을 가져다주는 필승운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이 거룩운동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 제 3의 영적각성을 일으키고 기독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이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춘천홀리클럽』 책자 발간을 축하하며

– 성시화운동은 "내가 먼저 운동이요, 살리는 운동"이다–



양인평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세계홀리클럽 연합회 공동회장

춘천홀리클럽의 15년간의 역사를 담은 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시화운동의 발상지답게 춘천이 하나의 모델 도시가 되어 가장 활발하게 모범적으로 활동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시화운동은 "내가 먼저" 운동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받고 변화되어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와 도시를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네 탓이오' 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고, 내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여 모든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식하고 돌이키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또한 성시화운동은 "살리는 운동"입니다. 죽어가는 환경을 살리고, 해체되어 가는 가정을 살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속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살려 깨끗하고 아름답고,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성시화운동의 목표입니다.

저는 춘천지방 법원장으로 근무했던 2년 4개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1996년 6월 8일 유명산에서 김주환 목사님을 모시고 가졌던 춘천홀리클럽 창립예배와 같은 해 7월 23일 소양호에서 유람선을 대절하여 100여 명의 회원들이 선상예배를 드렸던 감격은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용태 장로님이 청주 검사장으로 부임 후 회원들이 청주와 춘천을 버스로 오가

며 청주와 춘천을 성시화하기 위한 “청춘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대전법원장으로 발령받은 후 “대청춘사업”으로 발전하게 된 모든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춘천에서 “내가 먼저” 변화가 되었고, 춘천에서 제가 “살리는 운동”에 앞장서게 되어 ‘성시화 방화범’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춘천홀리클럽이 더욱 힘을 내고, 더욱 최선을 다하여 춘천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델 도시가 될 날을 고대해 봅니다.

축하메시지

새로운 도시선교의 소중한 지침서

– "춘천성시화 운동과 홀리클럽 활동의 보고(寶庫)" –



김주환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역임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역임
춘천홀리클럽 창립 당시 지도목사 역임
(현)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사회 부이사장
(현)순복음춘천교회 담임

한국에 기독교가 뿌리내리고, 민족 복음화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점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이었다면, 국내 선교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도시 중심의 성시화운동을 시작한 곳인 우리 춘천의 성시화운동은, 70년대 초 평신도 4-5명의 성경공부 모임이 씨앗이 되어,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 주관으로 72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펼친 "춘천성시화 전도대회"가 시발점인 것입니다.

그후 74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4일간)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초청 "춘천복음화 연합선교대회"를 시작으로, 90년대 초에는 각 직장선교회, 학원선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춘천성시화운동의 진로를 모색해 오다가, 90년대 중반 당시의 법원장, 검사장, 안기부장, 강원일보 사장, MBC 사장, 춘천시장, 경찰서장, 한전시장 등이 "기독교기관장 기도모임"을 가지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지금은 "춘천성시화와 춘천홀리클럽 연합운동"이 하나의 도시선교의 모델이 되어, 국내외 수많은 도시(국내 50개, 해외 20개)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춘천성시화운동은 실로 21C 국내외 도시선교의 원천이 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순복음춘천교회를 창립한 때(1972. 4. 3.)와 같은 시기에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특히 1996년 6월 8일 춘

천홀리클럽 창립 당시 지도목사로 함께한 저로서는 감회가 아주 새롭고 남다를 뿐만 아니라, 춘천홀리클럽이 창립되던 해 7월 23일 소양호에서 신입회원 환영을 위한 선상 감사예배를 드리던 일은 지금도 진한 추억으로 회고되는 감동의 시간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춘천홀리클럽이 창립 1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춘천성시화운동 38년의 역사와 춘천홀리클럽 14년의 활동 기록을 담은 화보책자를 출간하게 된 것에 경의를 표하며, 이 책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또한 새로운 도시 선교의 소중한 교훈서요 지침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춘천홀리클럽이 걸어온 그간의 사역을 축복하고, 앞으로도 춘천성시화운동의 구심체로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하메시지

세계 Holy Club의 요람 춘천



조남진 장로
춘천홀리클럽 초대회장
순복음춘천교회 원로장로

홀리클럽의 기원은 1720년대 감리교회의 창설자 요한 웨슬리와 그 형제 찰스 웨슬리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옥스퍼드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학생단체를 조직하기로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였으며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피와 몸을 받는 의식을 자주 가졌다. 이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으나 웨슬리 형제가 옥스퍼드를 떠난 1735년 해체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 홀리클럽이 창설된 것은 현재 세계 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이며 한국홀리클럽 대표회장으로 세계적으로 성시화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용태 장로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한 후 순복음춘천교회에 출석하셨는데 전도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춘천의 유지급 인사들과 기관장들에게 전도하여 1백여 명을 교회에 인도하였다. 전 장로는 수요일 저녁예배에 앞서 이들에게 초신자 교육을 실시한 후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모임을 춘천홀리클럽으로 명명하였으며 1996년 6월 8일 경기도 가평군 유명산에서 춘천홀리클럽 창립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지도목사로 위촉을 받은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가 춘천홀리클럽을 통해 춘천성시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내(당시 강원일보 사장)가 추대되었으며, 검사장이신 전용태 장로와 법원장으로 함께 홀리클럽 육성에 힘쓴 양인평 장로가 상임고문으로서 실질적인 홀리클럽을 이끌어 나갔다.

같은해 7월 23일 신입회원 환영을 위하여 소양호에서 선상예배를 드린 것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회장인 내가 월드비전 부회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계기로 2대 회장을 허 천 장로(현 국회의원, 당시 강원도의회 의장)가 맡게 되었고, 그 후 3대 회장으로 조은제 목사가 끌고 나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지 못했다. 2005년도에는 춘천홀리클럽 운영활성화를 위한 재건총회를 열어 4대 회장에 이학규 장로(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를 선출했다. 이학규 회장의 적극적인 활동과 긍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춘천홀리클럽은 나날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춘천성시화운동의 평신도 조직으로서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재건총회 후 거의 매달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회를 시내에 위치한 교회를 순방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창립기념일을 기하여 국내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성시화운동의 촉진을 위해 성시합창단을 창단하여 성시화운동 행사 때마다 찬양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춘천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홀리클럽은 전용태 장로와 양인평 장로에 의해 전국 곳곳에서 창립되어 성시화운동의 전위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세워져 춘천에서 시작된 홀리클럽운동이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춘천에서 시작할 때는 전용태 장로가 전도해 온 초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창립된 미약한 운동체였으나 15년이 지난 오늘에는 국내는 물론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도성에는 세계 도처에서 홀리클럽이 세워져 거룩한 도시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춘천은 물론 세계 홀리클럽의 요람이다.

축하메시지

과거를 거울삼아 보다 나은 미래를



허 천 장로
17, 18대 국회의원
강원도의회 의원 및 의장 역임
(사)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장

한국성시화운동의 발상지인 우리 춘천이 세계 도시선교의 모델이 되고 있음을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만한 일로 여깁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홀리클럽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춘천홀리클럽 창립 1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번에 '춘천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 화보집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열정적인 활동으로 새롭고 안정적인 지평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홀리클럽 이학규 회장님과 수석부회장이신 김영명 장로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까지의 업적을 보전하고자 함이 아니라 과거를 거울삼아 보다 나은 미래를 여는 지혜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춘천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 화보집 발간은 춘천홀리클럽의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고 오늘을 굳건히 다져서 영광스런 미래를 세우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며,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을 새롭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춘천은 지난해 서울과 고속도로 및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이 소중한 기회를 진정한 '춘천발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 화보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발간사

이학규 장로(춘천홀리클럽 회장) _ 3

격려메세지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_ 4

양인평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_ 8

축하 메시지

김주환 목사(춘천홀리클럽창립지도 목사) _ 10

조남진 장로(춘천홀리클럽 초대회장) _ 12

허　천 장로(춘천홀리클럽 역대회장) _ 14

Ⅰ. 성시화운동 / 20

1. 성시화운동의 개념 · 20
2. 성시화운동의 역사 · 21
3. 성시화운동의 내용 · 24
4. 성시화운동의 필요성 · 26

Ⅱ. 춘천성시화운동 / 28

1. 춘천성시화운동의 뿌리 · 28
2. 춘천성시화운동의 태동 · 29

⑴ 평신도 성경구락부를 시작으로 춘천성시화운동에 이르기까지 _ 29

⑵ 춘천성시화운동의 산실, 평신도 성경구락부 _ 32







3.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 · 35
⑴ 춘천성시화운동의 점화기 _ 35
⑵ 춘천성시화운동의 재점화기 _ 40
⑶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탄생 _ 41
⑷ 비전126 성시화 기도모임 창립 _ 54
⑸ 춘천성시화운동의 활성화 _ 54
⑹ 춘천성시신문 창간 _ 64
⑺ 춘천성시화 운동의 세계화 _ 65
4. 춘천성시화운동의 어제 · 66
– 2000년대 성시화운동이 남긴 것
특별기고 : 「춘천성시화운동의 회고와 전망」 – 문선재 목사(전 강원대학교 총장) | 84
5. 춘천성시화운동의 내일 · 92
– 의미, 비전 그리고 미래
⑴ 성시화운동의 의미 _ 92
⑵ 성시화운동의 3대 비전과 5대 과제 _ 95
⑶ 춘천성시화운동 2020 프로젝트 _ 98
⑷ 성시화, 위대한 도전의 미래 _ 99

Ⅲ. 홀리클럽 / 102
1. 홀리클럽의 정체성 · 102
⑴ 역사성 _ 102
⑵ 존재형태 _ 104
⑶ 성시화운동과의 관계 _ 104
⑷ 홀리클럽운동 방향 _ 104
2. 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의 역할 · 105

Ⅳ. 춘천홀리클럽 / 106

1. 춘천홀리클럽의 뿌리 · 106
2. 춘천홀리클럽의 탄생 · 106
3. 체질변화와 휴면기 · 114
4. 새로운 발돋움(2005 재건총회) · 119
5. 춘천홀리클럽운동의 실제(2006년 이후 활동실적) · 126

⑴ 성시화운동 체제로 조직개편 _ 126
⑵ 홀리클럽 기도운동 _ 127
⑶ 감사예배 _ 132
⑷ 헌신예배 _ 133

특별메시지 : 「다시 돌기를 시작하자」 – 원종국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 | 134

⑸ 춘천성시화를 위한 연합선교대회 _ 140
⑹ 거룩한 도시문화 창달 _ 143

》》》 홀리클럽 화보 | 158

6. 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의 과제 · 196

⑴ 교회들의 단합과 연합운동 _ 196
⑵ 성시화운동은 사명자가 맡아야 _ 196
⑶ 기도운동과 성시화 _ 197
⑷ 성시화운동은 성령운동 _ 197
⑸ 범죄없는 도시 _ 198
⑹ 감사가 넘치는 도시 _ 198
⑺ 성탄절 축제 _ 199
⑻ 청소년 레저스포츠 대회 _ 199
⑼ 건전한 교육문화 창달 _ 200

부록 / 203

– 성시화 3전운동 _ 204

》》》 춘천홀리클럽 행사 홍보물 | 210

》》》 춘천성시화운동(연합선교단체) | 224

편집후기 · 231







성시화운동

성시화운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성시화운동은 바로 예수님의 중요 지상사역이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I 성시화운동

1. 성시화운동의 개념

(1)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시화운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성시화운동은 바로 예수님의 중요 지상사역이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단독 사역을 하지 않으셨고 되도록 많은 제자들과 함께 팀 사역(Team Ministry)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 교회운동이다.

②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 같은 큰 도시를 주요사역지로 정하셨고 한 도시 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전 도시운동이다.

③ **예수님께서**는 복음전파(Preaching)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Teaching), 고치는(Healing) 전인적 구원, 교회부흥과 사회변화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 복음운동이다.

(2) 총체적 복음운동

① **성시화(聖市化)운동**을 문자적으로 보면 도시를 거룩하게 변화, 변혁시키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한국의 성시화운동**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 교회(Whole Church)가 전 도시(Whole City)에 전 복음(Whole Gospel)을 전하는 운동을 가리켜 성시화운동이라고 한다. 3전(全)운동 또는 총체적 복음운동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어느 도시의 성시화운동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3全운동의 세 가지 요소가 잘 충족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기준이 된다.

③ **성시화운동의 궁극적인 목적(Vision)**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고 그 목표(Target)는 전 도시에 전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전략(Strategy)은 전 교회가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2. 성시화운동의 역사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도시 안에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범죄의 측면을 보더라도 오늘날 도시 안에는 생계형 범죄보다는 강도, 강간, 살인, 조직폭력 등 이른바 도시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만든 도시는 구원의 핵심 대상이며 이러한 병폐가 많은 도시부터 정복하고자 하는 복음운동은 성경에 뿌리를 박고 인류 역사 가운데 지속되어 오고 있다.

(1) 성경상의 역사

신 · 구약 역사서의 내용을 보면 세상 나라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운동은 그 지역의 중요 도시들(니느웨, 여리고, 예루살렘,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등)부터 복음화하는 기사로 가득 차 있다.

(2) 서구의 역사

오늘날 한국의 성시화운동의 모델은 1530년대 존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운동이며 이 운동은 18세기 존 웨슬리의 영국 홀리클럽운동과 19세기 D. L. 무디의 미국 성시화운동으로 이어져왔다.

(3) 한국의 역사

1) 1972~1990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885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성령운동이지만 민족 복음화운동의 전략으로서 도시 중심의 성시화운동은 1972년 김준곤 목사의 설계와 주도로 열렸던 춘천성시화운동이 그 최초이다(김준곤 목사의 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 · 성시화운동 비망록 참조). 춘천성시화운동의 핵심 요소

인 전 교회(Whole Church)운동이란 교회와 목회자의 연합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특히 도시화 사회의 관리책임을 맡은 기독기관 단체장들이 일터 사도로서 서로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성시화운동은 목회자 리더십과 평신도 리더십의 조화를 이루는 운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그 후 소강상태에 있다가 서울에서 74 Explo(여의도광장), 80세계복음화대성회(여의도광장), 1981년 의정부에서 성시화운동본부 창립(본부장 안철호 목사)으로 이어져 오고 1987년에는 인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최성규 목사)가 창립되었다.

2) 1991~1999년

1991년 전용태 장로가 춘천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은 재점화되었다. 그는 당시 김기수 춘천검사장, 장성 2군단장, 경찰서장, 조남진 강원일보 전무, 이학규 교장 등과 함께 기관장 성경공부를 주강사 최일수 목사 지도로 처음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각 기관의 복음화가 가속화되어 춘천의 직장 신우회가 확산되고 신우회 회원이 800명에 이르렀다. 또한 1992년에는 춘천 성시화를 위하여 각 기관 단체와 직장 신우회 회원들이 성시 퍼레이드를 하는 등 성시화 분위기가 홍천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5년에 춘천 검사장으로 부임한 전용태 장로는 중보기도 및 가정 사역, 개인전도와 기관장 성경공부를 하던 중 양인평 장로가 춘천 법원장으로 부임, 성시화운동에 가세함으로써 춘천 성시화운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1996년에는 전도한 100여 명의 실업인과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최초의 춘천홀리클럽이 창립되었고, 그 여파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되었다.

그 후 전용태 검사장은 청주, 인천, 대구로, 양인평 법원장은 대전, 부산으로 전보되면서 각 도시에 검찰과 법원 신우회를 조직하고 성시화를 위한 개인전도와 홀리클럽과 성시화운동 조직에 전념하였다. 또 그들 부부는 성시화 중보기도와 가정 사역에 열정을 쏟았다.

3) 2000~2010년

1999년 공직을 사퇴한 전용태, 양인평 두 사람은 함께 성시화운동을 계속하고 천직(天職)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독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로고스를 설립하였고 국내 · 외 많은 도시에 홀리클럽과 성시화운동본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점차 조직이 확산되고 홀리클럽과 성시화운동본부가 '성시화' 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단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기독교연합회 등 기존 단체와의 긴장관계 등으로 성시화운동이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005년부터 성시화운동의 설계자인 김준곤 목사를 다시 세워 오늘날 한국의 성시화운동을 이끌어 가게 하셨다. 한국 C.C.C.와 성시화운동 총재인 故 김준곤 목사는 성시화운동 당초의 설계도대로 전 교회가 전 도시에 전 복음을 전하는 성시화운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 국내 · 외의 성시화운동 설명회와 창립에 적극 헌신하셨다. 2004년 포항세계성시선교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국내 · 외로 번갈아가며 개최하게 되었다.

(4) 성시화운동의 현황

1) 1972년도에 시작된 한국의 성시화운동은 그 후 20년 가까이 소극적 상태로 있다가 1991년과 1995년 춘천에서 몇몇 기독법조인 기관장들에 의하여 성시화운동을 목적으로 한 홀리클럽과 성시화운동본부가 조직됨으로 인하여 국내의 도시와 세계 도시로 뻗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2010년 10월 현재는 국제 50여 개 도시와 국외 한인 디아스포라 밀집 지역 20여 개 도시에 확산되었다.

2) 국내 : 춘천, 대전, 부산, 광주, 서산, 당진, 청주, 완도, 대구, 예산, 홍성, 구미, 서천, 포항, 군산, 목포, 천안, 태안, 울산, 원주, 순천, 전주, 보령, 여수, 서울, 영덕, 부천, 인천, 울진, 통영, 김천, 김포, 제천, 전주, 제주, 남해, 의정부, 평택, 남양주, 용인, 동해, 공주, 아산, 금산, 논산, 청양, 충주, 창원, 거창, 함양, 고성, 양산, 함안, 하동, 김제, 익산 등

3) 국외 :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라스베가스, 뉴욕, 런던, LA, 동경, 토론토, 산호세, 해밀튼, 오클랜드, 시드니, 시카코, 과테말라 등

3. 성시화운동의 내용

(1) 성시화운동의 목적(Vision)

성시화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1972년 춘천에서 시작된 한국의 성시화운동은 한 도시만이라도 완전 복음화하고 성시 모델 도시를 만들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하나님 나라 백성의 확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확산하는 운동이다.

2) 하나님 나라 주권의 확립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인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셨고 신약시대에는 교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확립하셨는데 성시화운동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도록 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확립하는 운동이다.

3) 하나님 나라 영토의 확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하여금 온 땅을 정복케 하셨는데 성시화운동은 온 세상의 땅(이방문화의 이방종교)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운동이다.

(2) 성시화운동의 목표(Target)

성시화운동의 목표는 전 도시에 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도시에 전하는 운동).

1) 전 도시라 함은, 한 도시 내의 모든 사람(개인, 가족, 교인, 직장인, 사회인, 내국

인, 외국인)과 모든 것(예컨대, 사람이 만든 법제도)을 말한다. 자연(Nature)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Nature)이 담긴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변화의 대상이 아니고 잘 보존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2) **전 복음이라 함은,** 영 · 혼 · 육의 전인적 구원, 신앙, 의식, 행동의 총체적 구원을 말한다. 영을 살리는 복음전파(Preaching), 혼을 살리는 가르침(Teaching), 육을 치유하는 고침(Healing)을 다 포함하며 교회 부흥, 인격 변화, 사회 변화를 모두 가져다주는 총체적인 복음을 말한다.

3) **전 교회라 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와 선교단체, 모두 연합

4) **성시화운동의 목표 설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시화운동은 각 도시와 지방의 복음화율(성결화, 복지화 포함)에 따라 도시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성시화운동의 전략(Strategy)

성시화운동의 전략은 전 도시에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교회가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 교회 전략은 협력어업, 그물전도 원리와 같다. 전 교회 전략에는 총체성, 복음성, 역동성이라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

1) 총체성은 성시화운동의 조직에 관한 원리이다(고전 12:12)

전 도시에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도시 내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목회자 Holy Club) 한 도시 내의 평신도도 연합하여야 하며(평신도 Holy Club) 나아가 목회자 리더십과 평신도 리더십이 하나 되는 한 개의 조직(성시화운동본부)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광주와 포항 외에는 한 조직만 있거나 두 개의 조직이 있어도 한 몸 같은 유기적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2) 복음성은 성시화운동의 활동에 관한 원리이다(딤전 4:5)

한 도시 내의 전 교회는 연합하고 화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사랑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전 도시에 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제네바 성시화운동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범죄

가 가장 적은 도시가 되었다. 한국의 성시화운동도 지도자 성경공부와 성시화 중보기도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3) 역동성은 성시화운동의 활동 범위에 관한 원리이다(마 28:19~20, 행 1:8)

복음을 전하는 성시화운동은 말씀운동, 성령운동이며 살았고 운동력 있는 운동이다(히 4:12). 성령운동은 세상 끝 날까지 하는 평생운동(Life-long Movement)이며 땅 끝까지 하는 세계운동(Whole-wide Movement)이다. 그러므로 전 교회는 말씀과 기도운동을 혈육화하여야 한다.

4. 성시화운동의 필요성

성시화운동의 필요성과 그 필요성의 정도는 각 도시와 국가의 복음화 정도, 성결화 정도, 복지화 정도에 따라 측정된다.

(1) 복음화의 필요성

현재 세계 복음화율은 가톨릭까지 합하여 32%로서 나머지 68%를, 한국 개신교 복음화율은 25%로서 나머지 75%를 복음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독교의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모든 교회가 협력하고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하며 목회자 리더십과 평신도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는 성시화운동 시스템으로 복음화를 가속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천주교 인구는 74.4%, 불교 인구는 3.9% 각 증가하였으나 기독교 인구는 1.6%가 감소한 861만 6,000명으로 발표되었다.

(2) 성결화의 필요성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 상실과 도덕적 해이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서울의 교회 숫자는 동경의 담배 가게 숫자보다 많은데 왜 도덕성(청렴성, 정직성, 친절성)은 복음화 1%도 안 되는 일본보다 떨어지고 있는가라는 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어떻

게 대답할 것인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양적 복음화와 함께 질적 복음화(신앙과 생활의 일치화)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

(3) 복지화의 필요성

오늘날 전 세계의 테러와 전쟁, 범죄와 부패, 이로 인한 빈곤, 질병, 인권 등 사회병폐는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범죄와 부패, 이혼,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3%의 소금만 있으면 바닷물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25%가 복음화된 한국의 이러한 사회 병리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양적 복음화와 함께 외적 가시적 복음화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제네바가 범죄율이 가장 낮고 브라질 휴마이타 교도소의 재범율이 종전의 75%에서 5% 이하로 떨어진 것은 제도와 율법이 아닌 복음(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II 춘천성시화운동

1. 춘천성시화운동의 뿌리

춘천을 거룩하고 범죄 없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교적 차원의 노력과 사역은 1970년대 초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주최한 "민족복음화운동 요원강습회"가 열렸을 때 강원도 C.C.C. 책임자였던 윤수길 간사의 강청에 따라 이 강습회에 참가한 조남진 장로 등이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한 것이 동기이다.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로 일컫던 이 모임이 C.C.C. 총재인 김준곤 목사께 알리어져 김 목사께서 춘천을 방문, 춘천을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은 지역 조건을 갖춘 도시로 춘천성시화 운동의 비전을 말씀하셨다.

당시 춘천 교계지도자였던 중앙감리교회 김연호 목사를 만나 이와 같은 춘천성시화운동에 대한 꿈을 나누고 이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여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가 결성, 김연호 목사께서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과 함께 72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민족복음화운동을 가속화하면서 우선 한 도시라도, 교회가 한 도시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섰으면 하는 소망으로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한 것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성시화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시작한 춘천성시화운동은 호반의 도시 인구 10만의 춘천시를 7,000명의 크리스천들이 전 교회 전 성도들이 총체적으로 뭉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전 시민을 태신자화 개념으로 입양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와 민족복음화운동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춘천"이라는 한 도시를 스위스의 제네바처럼 모든 것이 복음화된 도시로 만들고자 시작했다.

특히, 민족복음화운동의 총체적 전략을 한 도시에 결집하여 민족복음화 이전에 완전 복음된 모델도시로 이루어보고자 하는 비전으로 기획되었고, 교회목사님들은 목회철학을 바꿔 우리 안의 양들과 우리 밖의 양들로 구분하여 교적에 올리고 지속적으로 전 교인이 우리 밖의 양들을 태신자로 삼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돌봐주는 목민센터가 되자는 전략이었다.

2. 춘천성시화운동의 태동

(1) 평신도 성경구락부를 시작으로 춘천성시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춘천성시화운동의 시작은 1972년 8월에 열렸던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나 이때 춘천성시화대회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70년, 71년의 감추어진 준비기간이 있었다. 70년 12월 31일부터 71년 1월 3일까지 한국대학생선교회(총재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

김준곤 목사)가 주최한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가 수원농대캠퍼스에서 열렸다. 민족을 복음화한다는 큰 꿈을 안고 전국각처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 수천 명이 몰려왔다. '우리의 살길은 오직 민족의 복음화'라는 슬로건 하에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믿고 전도하는 일정이 계속됐다.

70년에 처음 예수를 믿어 병 고침을 받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대학생선교회 사업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던 조남진 장로(당시 강원일보사 편집부국장)가 대학생선교회 강원도 책임자였던 윤수길 간사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 이 수원농대 캠퍼스에서 열린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와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C.C.C. 윤수길 간사를 지도자로 하여 4명(윤수길, 조남진, 김형목, 박제헌)이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일 교회 출석 외에는 별로 다른 모임이 없었던 때라 4~5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가 공동주최한 춘천시 전도대회
- "춘천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 '72. 7. 31~8. 4까지 5일간 춘천시내 체육관 에서 열렸다.

고 성경을 배우며 각자가 체험한 신앙을 간증하는 일은 색다른 관심을 모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평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학교수, 초 · 중 · 고 교원, 공무원, 언론인, 경찰관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인 이 모임은 단시일 내에 인원이 20명에서 30명까지 늘어났으며 내 고장 복음화의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이 모임은 '춘천평신도 성경구락부' 로 명명되어 날이 갈수록 활기를 띠어갔다.

이와 같은 사실이 윤수길 간사에 의해 C.C.C. 총재인 김준곤 목사에게 알려져 김 목사께서 춘천에 내려오셨다. 김준곤 목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호수로 둘러싸인 춘천은 마치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다." 면서 제네바가 성시화운동을 벌여 범죄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었는데, 춘천도 성시화운동을 벌여 시범적인 기독교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춘천성시화운동의 비전을 말씀하셨다. 김 목사는 당시 춘천 기독교계의 지도자였던 중앙감리교회 김연호 목사를 만나 춘천성시화에 대한 꿈을 나누고 춘천의 온 교회와 대학생선교회가 힘을 합하여 춘천성시화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춘천성 시화 전도대 회(춘천실 내체육관) 모습

춘천성시화 운동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연호 목사가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샘밭침례교회 허걸 목사가 총무를 맡게 되었으며 YMCA 총무 김홍규 장로가 협동총무로 춘천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의 손발노릇을 하면서 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춘천성시화 전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 대회는 C.C.C.가 전개하고 있는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를 겸하여 열렸기 때문에 전국에서 약 5천 명 가량의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여름 방학 때라 춘천시내 각 학교를 숙소로 사용하고 소양강변에 이들 5천 명이 먹을 특설 취사장이 설치되었으며 2군단 군용트럭이 동원되어 밥을 실어 나르는 등 대단한 역사들이 이루어졌다. 성시화대회는 예배와 전도로 수천 명의 전도대원들이 춘천 시내의 곳곳을 휩쓸며 전도열기로 가득했으며 많은 결신자들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2) 춘천성시화운동의 산실, 평신도 성경구락부

춘천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운동의 실질적인 산실 역할을 한 선교단체는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신도 성경구락부의 시작은 1970년 초반 강원일보사 편집부국장을 지내던 조남진 국장이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완치되는 기



평신도 성경구락부「신앙강좌」

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조남진 국장이 은혜와 성경말씀이 갈급하여 C.C.C. 윤수길 간사를 비롯하여 조남진 국장을 사랑하는 김형목, 박재헌, 윤수길 형제들이 모여서 성경공부를 시작 하였고 그 소문이 나자 문선재, 이원봉, 정길연, 이학규, 박태준, 이순훈, 김기태 형제 등 20-30여 명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모여와서 찬송과 기도로 믿음의 불을 붙이고, C.C.C.의 윤수길 간사가 성경공부를 인도하였다. 때마침 윤수길 간사를 통해 C.C.C. 대표이셨던 김준곤 목사가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 소식을 듣고 오셔서 성경구락부 대표와 교역자 대표들이 회동하여 춘천성시화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제안하고 대표들이 이에 합의하고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4일까지 전국에서 5,000여 명의 민족복음화전도요원들이 춘천실내체육관에 모여서 춘천성시화대회를 개최한 것이 최초의 성시화운동의 시작이었다. 춘천성시화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연호 목사님)를 조직운영하려 하였으나 협력이 잘 되지 않아 얼마가지 못하여 잠들고 말았다.

그러나 성시화운동의 모체였던 평신도 성경구락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 수가 늘어났다. 평신도 성경구락부는 신앙강좌를 개최했으며 강사로는 예수원 원장 토레이 신부, 예수전도단 로스 목사, 서울대학교 교수 황희융 박사, 중앙대학교 교수 최재선 박사, 예수원 조병호 목사, 중앙신학교 이호빈 목사 등 특별강사를 초청하여 신앙강좌



김종사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성경공부를 마친 후 -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1974)

를 계속했으며, 1974년 10월에는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춘천실내체육관에서 4일간 춘천 복음화를 위한 초교파연합선교대회를 개최했고, 1980년 7월에는 김준곤 목사와 김세창 목사를 특별강사로 초청하여 "춘천을 성시화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춘천성시화 연합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평신도 성경구락부에서 성시화운동의 불을 받은 평신도들이 각 교단의 평신도 리더가 되어 교단별로 성시화대회를 개최하는 예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감리교회 춘천동지방 평신도부(총무 이학규 장로)가 주관하며 1988년 6월 27~29일에 걸쳐 개최한 춘천복음화를 위한 연합선교대회가 그 한 예다. 평신도성경구락부는 이 설교대회를 위한 특별기도회로 12회 모여서 성공 대회를 위해 기도하였다. "VISION 2000 세계가 우리를 부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전가화 목사를 특별강사로 춘천실내체육관에서 3일간 개최한 이 선교대회 때에는 초교파로 연인원 18,800명이 모여서 은혜 받고 춘천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하여 뜨겁게 부르짖고 성시화를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은 각자 자기 직장을 중심으로도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자인 경우 교육선교단체인 한국교육자선교회 춘천지회와 강원도지방회(회장 이학규 장로)가 리더가 되어 학원 복음화에 힘썼으며 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회원연찬회 및 학원복음화 선교대회를 춘천에 유치하고 600명 회원이 강원대학교 기숙사에 투숙하고 백령문화관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 강원도 교육감이 참석자에게 선물을 증정했고, 양인평 법원장, 전용태 검사장, 이범찬 안전기획부 강원도지부장, 배계섭 춘천시장, 최종문 강원은행장 등이 참석하여 격려하고 성시화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춘천시내 교회 목사님들이 넉넉하게 협찬해 주신 예산으로 풍성한 축제를 치루었다.

이때 직장선교회가 태동했으며 강원일보사 신우회, 강원도청 신우회, 한국은행 신우회, 춘천시청 신우회, 농협 신우회, 한국통신 신우회, 한국전력 신우회 등 일터교회의 모임이 활발했는데 직 · 간접적으로 평신도 성경구락부의 영향을 받았다.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는 1971년도부터 1995년 8월까지는 보험회사, C.C.C. 회관, YMCA 회관, 중국집 대화관, 미장원, 순복음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베드로병원 등으로 집회 장소를 옮기고, 변충구 목사, 김동성 목사, 이학규 장로 등이 성경공부 인도자가 되었으며 100여 명의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울부

짖어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1995년 검사장 공관에서 모이는 기관장기도모임과 목적이 같고 모이는 시간이 중복되어 평신도 성경구락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기관장기도모임과 합치기로 결의하고 마무리하였다.

3.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

(1) 춘천성시화운동의 점화기 (1970~1980년대)

72년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후, 안타깝게도 춘천교회의 목회자들과 대학생선교회간의 의견마찰로 인해 '춘천성시운동위원회'는 해체되었고, 공식적인 '춘천성시화운동'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당초 이 운동의 모체였던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 모임은 계속되어 73년에 예수원 원장이신 토레이 신부님을 초청하여 성경강좌를 가졌으며, 74년에는 예수전도단 창설자인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을 초청하여 강좌를 열었고, 이어서 서울대학교 황희융 박사, 중앙대 최재선 박사 등 당시 새로운 신앙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시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활동은 계속됐다.

74년에는 10월 14~17일까지 강원 체육관에서 조용기 목사를 초청, '춘천복음화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평신도모임으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때 행사는 전도대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조찬기도회도 가졌으며, 군부대와 교도소 방문 집회 등 다양한 전도활동을 펼쳤다.

80년에는 1월 21일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춘천복음화운동 위원회를 결성, 타지역에서 활동하다 다시 돌아온 김연호 목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춘천시민을 그리스도에게로, 춘천을 성시화 하자"는 주제로 춘천복음화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강사로는 김준곤 C.C.C. 총재와 김세창 세계복음화운동 총재를 초청했다.

춘천복음화대전도대회





- '74. 10. 14~17
- 강사 : 조용기 목사
- 장소 : 춘천실내체육관
- 주최 : 춘천성시화운동 위원회



김일환 장로(당시 · 강원도민 회장, 맨 우측)

춘천성시화를 위한 조찬기도회



조찬 1



조찬 2

'74년 춘천복음화대전도회 기간(10. 14~18) 중 조용기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74 춘천복음화대전도대회 기간(10. 14~18) 중 조용기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① 도지사(박종성), 기관장로회(10. 16)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박종성 도지사, 조용기 목사, 조남진 강원일보전무

◉ 춘천복음화를 위한 연합선교대회 (1988. 6. 27-30 춘천실내체육관, 강사 : 전가화 목사)






VISION 2000 세계가 우리를 부른다!


화 선 교 대 회
VISION 2000 세계가 우리를 부른다!

(2) 춘천성시화운동의 재점화기(1990년대)

70년대 초부터 태동하여 72년 성시화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은 어떤 때에는 역동적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흘러오면서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제목으로 삼아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르렀다.

90년대에 이르면서 특이한 일은 강원도청, 춘천시청, 전신전화국, KBS, 강원일보 등 각 직장마다 신우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90년 4월 17일 춘천 · 춘성지역 8개 직장신우회가 동부장로교회에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을 중심으로 기독교인 생활을 바꾸는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때 91년 8월 춘천지방 검찰청 차장검사로 전용태 권사가 취임해 왔다. 전 차장검사는 72년 춘천성시화대회에 평검사 때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의 재현을 소망했다. 이리하여 봉의동에 있는 차장검사 사택은 성경공부의 요람이 되었고, 당시 김기수 검사장을 비롯한 일부 기관장들과 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춘천성시화의 재점화를 지펴나갔다.

1992년 8월 2일에 있은 '예수 평화대행진'과 '성시화 연합집회'는 춘천성시화운동을 춘천시민에게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낮에는 '예수 평화대행진'이란 표어를 쓴 현수막을 내걸고 시가행진을 하였고, 밤에는 전 과학기술처장관 정근모 장로를 초청한 성시화 연합성회(제일감리교회)가 열렸다. 이날 성회에서는 문선재 강원대총장이 춘천성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조남진 장로는 춘천성시화운동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 모임에서는 1,500명의 교계지도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춘천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그 후 8개 직장신우회로 시작한 춘천 직장신우회 연합회는 33개 신우회가 가입하는 등 급진적으로 발전했다.

※성시화운동 진로모색

94년에는 춘천기윤실과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의 공동주최로 김진홍 목사를 초청하여 복음과 춘천 94 성시집회가 9월 8~9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첫날은 김진홍 목사(두레마을대표)의 말씀집회로, 둘째 날은 춘천성시화 진로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기조연설은 문선재 박사(강원대 총장)가, 토론자는 한균 목사(평화교회), 피종호 목사(나눔교회), 장근성 목사(춘천IVF), 안동규 교수(기윤실 춘천대표), 윤태호 목사(예수제자운동), 조남진 장로(월드비전 강원지부장)가 참여했다.

(3)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탄생 (1996. 9. 19)

춘천성시화운동은 95년도에 들어서 획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91년도에 차장검사로 부임하여 춘천성시화운동에 불을 붙였던 전용태 권사가 장로가 되어 95년 9월에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춘천에 다시 부임하였다. 곧이어 양인평 장로가 춘천법원장으로, 이범찬 안수집사가 안기부 지부장으로 부임해 왔고 성시운동의 초기멤버였던 조남진 장로가 강원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영향력 있는 기관장들이 춘천에 모여들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후 뜻을 같이한 기독교 기관장들이 매주 금요일을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관장 기도모임일로 정하고 기도모임을 가지면서 성시화운동을 활성화하여 춘천을 거룩한 도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성시화운동본부를 만들기로 하고,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독교연합회를 만들어 기독교운동체로 세우고, 여기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만들자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96년 9월 2일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 개소(월드비전)를 하고,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구로 '춘천기독교연합회('96.9.12)'의 탄생을 도왔으며, 96년 9월 19일 소양성결교회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가 함께하는 연합체가 있어야 하는데 춘천에는 이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부활절연합예배와 8 · 15 광복절예배를 주관하던 '춘천기독교역자연합회'라는 교역자들 간의 친목단체만이 있었을 뿐이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당시 춘천기독교역자연합회장 이원호 목사(소양성결교회)의 결단을 힘입어 만들어진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초대회장에 임택창 목사가, 성시운동본부 초대본부장에는 조남진 장로가 취임하였고, 월드비전 강원도지부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리하여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연합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96년 춘천성시주간으로 선정, 성시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시화운동에 들어갔다.

첫 성시주간 행사는 첫째 날 성시토론회(발제자: 민족통일연구원 허문영 박사, 토론자: 전용태 · 조남진 장로, 김광국 목사, 이갑용 C.C.C. 간사), 둘째, 셋째 날 홍정길 목사 초청 전체집회, 넷째 날 기독교기관장을 비롯한 선교단체교회 헌신자 150여 명

이 시내 전역을 돌며 총력 전도를, 다섯째 날 전 국무총리 이영덕 장로 초청 성시기도회, 여섯째 날 청소년 자녀교육특강, 일곱째 날 김준곤 목사 초청 총력전도 특강 후 1,500명이 춘천성시화를 다짐하며 총력 전도를 펼쳤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창립총회('96. 9. 12)



석사감리교회(예배당)





춘천기독교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임택창 목사(석사감리교회 담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96. 9. 19)



소양성결교회



예배 안내위원



입장하시는 춘천지방법원장 양인평 장로
춘천지방검찰청 장 전용태 장로



초빙강사 김선도 목사, 춘천교역자연합회장 이원호 목사,
춘천지방법원장 양인평 장로, 춘천지방검사장 전용태 장로







기념예배



기념예배





이민섭 국회의원, 두상달 장로





만찬과 교제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되기까지 :기관장 기도모임('96. 1~96. 9. 20)



'96. 1. 26(검사장 공관에서)



'96. 2. 2(검사장 공관에서)



'96. 8. 2(검사장 공관에서)



'96. 8. 16(월드비전에서)



'96. 8. 28(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집무실에서)



'96. 8. 28(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집무실에서)



'96. 8. 22 (법원장 집무실에서)



'96. 8. 29 (효장동 한우리 식당에서)



'96. 8. 30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96. 8. 30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96. 8. 29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96. 9. 2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 개소)



사무실 개소 감사기도 (길동휘 목사)



'96. 9. 6 (한전강원지사에서)



'96. 9. 6 (한전강 원지사에 서)



'96. 9. 6 (한전강 원지사에 서)



'96. 9. 6 (한전강 원지사에 서)



'96. 6. 10 (강원대 학교 방문)



'96. 9. 13 (홍천 오안초 교에서)



'96. 9. 13 (홍천 오안초 교에서)



'96. 9. 17 (춘천지 방검찰청 검사장 집무실 에서)



'96. 9. 20 (월드비 전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및 성시화운동본부장 취임



임택창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취임 예배
('96. 10. 1)



조남진 춘천성 시화운동본부장 취임 ('96. 10. 1)



춘천성 시화운동 본부 현판식 ('96. 10. 1)

제1회 춘천성시화 선교대회('96. 9. 30~10. 6)



제1회 춘천성 시화 선교대 회전단지

초청 합니다.

첫째날(9/30)월

성시토론회
순복음춘천교회(오후 7:00)

둘째,셋째날(10/1-2)화.수

성시집회(강사:홍정길목사)
백령문화관(오후7:00)

넷째날(10/3)목

총력전도의 날
강대미래의광장(오후2:00)

다섯째날(10/4)금

연합기도회(이영덕前총리)
백령문화관(오후 7:00)

여섯째날(10/5)토

성시특강(강사:오인숙, 김형모)
백령문화관(오후 7:00)

일곱째날(10/6)주일

연합집회(강사:김준곤목사)
백령문화관(오후 7:00)

춘천성시화 운동본부
Chunchon Holy City Movement Center
춘천시 효자1동 373-90
☎(0361)56-1260,
57-1260(FAX 겸용)

우/리/의/꿈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썩은 땅에 뿌려져도
썩은것을 흡수하여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바뀌고,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이 바뀌며, 민족과 세계가 바뀝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생명의 빛으로 춘천을 섬기고자 춘천성시화 주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춘천과 민족과 세계 위에 가득찰 것을 소원합니다.

당신을 '춘천 성시화 주간'에 초청합니다.
당신의 귀한 발걸음은 춘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뒷장에는 당신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1회 성시화 선교대회 초청장(1996. 9. 30~10. 6)



춘천성시화 선교대회 포스터

교회순방 새벽기도회('96. 9.30-10. 6)



기관장들이 동원감리교회 새벽기도회에 참석

성시토론회('96. 9.30)



주제 : 춘천성 시화운동 본부의 과제와 전망, (주제발 표자 허문영 박사)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성시토론회 참가하신분(명단)



인사말씀 허문영 박사(주제발 표자)



인사(조님진 장로)



인사(전용태 장로)



토론전 합심기도하기



성시연합집회('96. 10. 1-10. 6)







일곱째 날 사회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말씀선포(김준곤 목사 C.C.C. 총재)







(4) 비전126 성시화 기도모임 창립

시편 126편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근거로 창립된 기도모임이다. 이 기도모임은 경기도 광주평화교회 이동현 목사에 의해 착안되었고, 서울시장을 역임한 변호사 김상철 장로와 할렐루야교회 이종윤 목사 등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중보기도운동을 펼쳤다.

1996년 7월 12일 춘천지역 영적지도자들과 뜻을 같이하여 비전126춘천성시화 중보기도모임을 창립하고 매월 1회씩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시화가 무르익어가게 되었다.

(5) 춘천성시화운동의 활성화(1997)

춘천성시화운동은 성시화운동본부가 발족한 이듬해인 1997년도에 들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춘천기독의료인선교회, 만나선교회 등 영역별선교회가 발족되었고, 강원도교육자선교회(회장 : 이학규 장로)는 한국교육자선교회 37차 여름연찬회를 춘천에 유치,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전국에서 6백여 명이 모여 연수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6 · 25를 앞두고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를 초청하여 공지천 광장에서 민관군이 망라하여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시국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11월 21일에는 기독교 기업으로 성공한 이랜드 박성수 사장을 초청, 특별강연회를 가졌으며 차세대 성시화운동요원 양성차원으로 청소년들의 영성개발을 위해 영어 영성개발 훈련을 갖기도 했다.

또 11월에는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는 4백 페이지가 넘는 성시운동 책자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름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춘천성시화운동의 어제, 오늘, 내일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1998년에는 기윤실 대표로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 손봉호 장로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97년 9월 9일 창립 1주년 행사로 성령운동을 일으키며 세계최대의 교회를 이룬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초청 대성회를 개최하였다. 춘천 시민초청 대성회에는 양인평 법원장, 이범찬 안기부 지부장, 조

남진 강원일보 사장, 최종문 강원은행장, 손은남 농협지역 본부장, 이돈섭 강원도 정무부지사 등 기관장을 비롯한 목회자, 성도 1만여 명이 삼천동 야외음악당을 메웠다. 둘째 날 10일 오전 7시 조용기 목사 초청, 춘천지역 기관장 조찬기도회가 두산리조트에서 열렸다. 기도회에는 류종수 국회의원, 김병두 교육감, 이범찬 안기부 지부장, 조석봉 도경찰청장, 최상필 도의회 의장, 안형순 도민일보 사장, 김영태 KBS 총국장, 유수열 춘천문화방송 사장, 노병유 CBS 본부장, 최종문 강원은행장, 배계섭 춘천시장, 박민수 교대총장 등과 임택창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을 비롯한 윤철중, 김주환, 김광국 목사 등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했다. 이어 오전 10시 춘천시내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열려 조용기 목사가 오늘까지 목회해 오면서 겪은 간증을 전했다. 또 저녁 성회에는 더 많은 청중들이 모여 은혜 받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성시화 본부 창립 이후 은사별 영역그룹이 활성화되고 춘천애중회(기독법조인회) : 기독법조인 사이의 상호친목과 신앙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 정의를 정립하고 복지사회의 구현을 목적(창립 : '96. 5. 6. 회장 : 이태수 판사), (사단법인)기독교세진회 춘천지회 : 기독교적으로 재소자 및 출소자, 소년원생,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 및 교화사업을 목적(창립 : '96. 5. 28. 회장 : 윤철중 목사), 춘천홀리클럽 : 춘천성시화와 춘천을 거룩한 도시, 범죄가 없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성경연구와 기도모임(창립 : '96. 6. 8. 회장 : 조남진 장로), 춘천성시화 기독미술인회 : 춘천의 기독문화의 정착,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기독미술향상 발전을 도모(창립 : '97. 4. 1. 회장 : 김정희 교수), 기독의료인회 : 약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모든 기독의료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를 목적(창립 : '97. 8. 25. 회장 : 유영호 원장), 강원청소년선교회 : 청소년의 전도와 양육을 목적(창립 : '97. 9. 4. 회장 : 최상필 강원도의회 의장), 춘천만나선교회 : 음식점을 경영하는 기독인으로 친목과 복음전도를 목적(창립 : '97. 10. 10. 회장 : 홍승찬 장로), 예수사람운동(현, 예스컴) : 춘천지역의 청소년 복음화를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이후로 기관장 기도모임도 각 직장신우회를 통한 기관 방문 예배로 활성화되었다.

기관장기도모임의 직장방문 예배




'97. 7. 10(월드비전)






'97. 10. 2(월드비전)





'97. 7. 18(강원도청 방문)

김형재 도의원, 최각규 도지사, 조남진 강원일보 사장







'97. 12. 4(춘천시청 방문)



'97. 12. 26 (강원일보사 방문/시장/집무실 에서)



성시화의도시 춘천에서 전국 각 지역 교육자가 모여 학원복음화와 민족복음화를 다짐했다. 1997. 8. 13 강원대학교 캠퍼스

◉ 비상시국 구국기도회('97. 5.21)







공지천 시민공원 야외 음악당



차세대성시요원육성 / 영성 세미나('97. 2. 27~3. 1)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 강사 이한수 박사(소망선 교교회 담임)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1주년 맞이 "시민초청대성회" ('97. 9. 9~9. 10)







◉ 기관장 초청 조찬기도회('97. 9. 10 라데나 리조트)









춘천성시운동본부 창립1주년기념 합동예배('97. 9. 19)




춘천기독교연합회, 기관장 기도모임, 홀리클럽(월드비전 춘천종합복지관)

애중회(창립 : '96. 5. 6)




월례예배('97. 7. 8 법원회의실)

세진회(창립 : '96. 5. 28)





창립1주년 기념예배('97. 6. 17) 두산 리조트

춘천기독미술인회 창립('97. 4. 1)





춘천시립문화관(전시실)





기독의료인 선교회 창립('97. 8. 25 세종호텔/회장 : 유영호 장로(유영호 치과원장)









청소년선교회 창립('97. 9. 4)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관



초대회장 박상필 장로(강원도의회 의장)



함께하신 기관장(발기인)



청소년 서약(강대 문병용 교수)

만나선교회 창립('97. 10. 10)



동면 장학리(石井가든)에서 / 회장 홍승찬 장로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김광국 목사

(6) 「춘천성시신문」창간(1998. 9. 15)

춘천성시화운동은 운동본부 발족 첫해 성시주간 행사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가 성시운동을 위해 1천만 원의 큰돈을 기탁해 주신 것을 비롯해 각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성시헌금이 들어왔다. 성시운동본부 초대 사무국장에 이상표 목사가 부임했다. 군 선교를 위해 헌신하던 이 목사는 인상 좋은 푸근함과 열정으로 성시운동의 실무를 잘 추진했다. 후에 이 목사가 충북 경찰대학으로 전임되어 2대 사무국장은 월드비전 춘천복지관장인 이경준 목사가 맡았다. 이경준 목사 역시 남다른 친화력과 열성으로 초기 성시화운동을 잘 이끌어 나갔다.

98년 이경준 목사도 동해복지관장으로 전임케 되어 후임 사무국장을 물색 중 도청 고위직 공무원 퇴직 후 신학교 과정을 마쳐 목사안수를 받은 조충환 목사에게 부탁했다. 조 목사는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사무국장 제의를 받자 좀 망설였으나 승낙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조충환 목사가 3대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였고, 글 솜씨가 있던 조 목사와 춘천성시신문을 발간해 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당시 춘천기


聖市 新聞

인쇄인:조남진 편집인:조충환 (200-091)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0361)256-1260-1 FAX(

간 사

조 남 진 장로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 본부장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성시화

인사말씀

윤철중 목사
춘천성시화 운동본부대표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춘천성시화운동은 운동본부 발족 첫해 성시주간 행사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가 성시운동을 위해 1천만 원의 큰돈을 기탁해 주신 것을 비롯해 각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성시헌금이 들어왔다. 성시운동본부 초대 사무국장에 이상표 목사가 부임했다. 군 선교를 위해 헌신하던 이 목사는 인상 좋은 푸근함과 열정으로 성시운동의 실무를 잘 추진했다. 후에 이 목사가 충북 경찰대학으로 전임되어 2대 사무국장은 월드비전 춘천복지관장인 이경준 목사가 맡았다. 이경준 목사 역시 남다른 친화력과 열성으로 초기 성시화운동을 잘 이끌어 나갔다.

98년 이경준 목사도 동해복지관장으로 전임케 되어 후임 사무국장을 물색 중 도청 고위직 공무원 퇴직 후 신학교 과정을 마쳐 목사안수를 받은 조충환 목사에게 부탁했다. 조 목사는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사무국장 제의를 받자 좀 망설였으나 승낙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조충환 목사가 3대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였고, 글 솜씨가 있던 조 목사와 춘천성시신문을 발간해 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당시 춘천기

성시화운동 참여 감

1998년 9월1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1-2)
춘천성시신문 창간10주년 기념 감사예배
일시:2008년 9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성시본부 세미나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1-2)
춘천성시신문 창간10주년 기념 감사예배
일시:2008년 9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성시본부 세미나실

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 : 김영명 안수집사)의 「직장선교」라는 회지도 촉매제가 되어, 성시화운동본부 창립2주년을 맞이하는 '98. 9. 15 성시신문이 창간되었다(발행인 : 조남진 장로, 편집인 : 조충환 목사). 창간호부터 얼마 동안은 1972년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온 분들(문선재 목사, 조충환 목사, 김영명 장로 등)의 각종 기록물이 크게 도움이 되었는데, 기록은 역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시신문의 창간으로 성시화운동은 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현재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춘천기독교계의 활동상과 성시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게 됨으로 성시화를 앞당기게 되었고, 또한 성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연구와 배움의 장을 제공하게 되어 보다 성숙한 기독교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춘천성시신문」은 어느덧 창간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월 4,000부씩 발행되어 국내 · 외 선교지로 배부되고 있으며, 문서 선교로서뿐만 아니라 성시화운동의 세계화에 촉매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1999년도에 성시화를 위한 중보기도학교 운영, 기사선교회의 창립(5. 12), 경찰 가족을 위한 부흥회(5. 30~6. 2), 6·25 상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등을 시민, 교회 연합운동으로 실행하였다.

(7) 춘천성시화운동의 세계화

1) 전국도시로 확산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된 이래, 해를 거듭할수록 성시화운동이 활기를 띠어갔으며, 춘천에서 성시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1997년 전용태 검사장이 청주 지검으로, 양인평 법원장이 대전법원장으로 전임해갔고, 다시 전용태 장로가 인천, 대구로, 양인평 장로가 부산으로 부임해감에 따라 청주, 대전, 인천, 부산, 대구 순으로 성시화운동본부가 생기고 홀리클럽이 창립되는 등 성시화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케 되었다.

2) 해외 도시로 확산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인도 비하르주의 파트나시(인도예수가족 이영길 선교사)

와 영적 자매결연을 맺고 비하르주의 대표적인 10개 관문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 중보기도사역과 세미나 및 전도집회를 개최하였다(2000. 9. 9-16). 성시화운동의 해외확산은 성시기도운동과 해외선교를 추진하여 온 조은제 목사, 기정희 권사 등을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집회에는 초교파적으로 30여 명의 전도와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파트나 시민 전도대성회는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기도세미나는 김성수 목사(현, 아름다운교회)가 맡아서 말씀사역을 인도하였다.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시(선교사 이영길 목사)에 확산되어 가는 성시화의 열기가 성시화운동의 해외확산의 문을 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춘천성시화운동의 어제
- 2000년대 성시화운동이 남긴 것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상설기관으로 창립된 지 14년이 흘렀다. 춘천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이 어느덧 세계적인 기독교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갈릴리 나사렛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시화를 부르짖은 이름도 없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을 들어 이 큰 역사를 이루셨다. 성시화! 그 도전과 도약의 10년 역사를 사진과 기사로 더듬어 보고자 한다. 성시화의 흔적들을 들추어보면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1) 2001년(기독교문화운동전개-홈페이지와 십자가행진)

성시화운동은 삶의 양식을 기독교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그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부활절 새벽촛불예배와 더불어 기독교문화 정착을 위해 십자가 고난행진(4. 15. 오후 2:00)을 계획 실행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백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흰 가운에 붉은 색 천을 두른 목사, 장로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공지천 야외 음악당을 출발하여 삼천리 동

산까지 1.2킬로미터를 짊어지고 걸어가며 십자가 고난을 체험하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독교 연합회와 성시운동본부는 춘천을 기독교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하고, 십자가 행진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연극,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문화행사를 계획,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디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성시본부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홈페이지를 개설(담당 : 유근창 장로)하여 통신을 통한 성시화운동의 확산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2) 2002년(전도와 선교운동의 활성화-해외선교를 위한 퍼스펙티브스)

성시화운동은 영혼구원을 근간으로 하는 총체적 선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도와 선교운동을 통한 복음화의 성장과 성숙이 없이는 성시화운동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성시화운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총력전도운동을 계획 실행(7. 5-7. 8)하였다. 38개 교회와 훈련받은 대학생 선교단체 전도요원 417명은 기독교연합회(회장 : 김창수 목사)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5천명 전도를 목표로 하여 집중적인 전도사역을 펼쳤다(총 전도대상 : 3,249명, 영접자 : 1,180명). 또한 청소년 선교단체인 예수사람운동(대표 : 박상철 목사)은 9월 둘째 주를 청소년 복음화 주간으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전도행사를 가졌다. 해외선교활성화와 선교사 동원을 위한 춘천 1기 목회자, 선교단체 지도자 퍼스펙티브스(4. 29-7. 2. 장소 : 중앙감리교회, 주최 : 선교한국, CCF)가 개설되어 많은 지도자들이 동참하였다.

(3) 2003년(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도시, 춘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 사명과 더불어 시대마다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과거에 매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선교와 성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11. 2-11. 5 강사 : 이동휘 목사 외, 장소 : 동부장로교회)가 시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 · 일교회 지도자 교류 친선대회(9. 24. 오후 2:00, 장소 : 우두교회, 선교사 : 조영상)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본을 가슴에 품고 성시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교회 지도자들은 춘천의 성시화운동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목사 및 신도대표 22명이 방문하였다. 춘천성시본부는 오직 기도만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창립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10. 6. 오후 5:00, 장소 : 춘천베어스타운관광호텔).

(4) 2004년(새로운 도약을 향하여-성시본부의 개편과 성시신문의 재창간)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 오승룡)에서는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조영춘 목사(예광교회)를 새롭게 임명하고, 춘천성시신문 편집인으로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를 영입하여 춘천성시신문을 재창간,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였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가(10. 3-6, 강사 : 피영민 강남중앙침례교회, 장소 : 동부장로교회) 진행되었는데, 춘천출신의 선교사들의 선교보고와 함께 춘천과 성시화운동이 세계선교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5. 29-6. 2, 포항성시화운동본부)에 대표단(조은제 홀리클럽회장, 조영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재호 성시본부 사무차장, 최상도 성시화연구소장 등)을 파견하여 성시화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춘천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회를 가졌다.

(5) 2005년(지역복음화를 위해 지역사랑운동에 참여)

성시화운동은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지역사랑운동이라 할 수 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한 해 동안 지역사랑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강원도 총기독교연합회(회장 : 임신영 목사)에서는 8월 28일(주일) 오후 1시 30분 춘천호반체육관에서 '강원도민사랑결의대회(횃불기도회)'를 열었다. 18개 시, 군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민사랑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10월 28일 오후 7시 C.C.C. 총재이신 김준곤 목사를 초청, 춘천성시화 일일 특별성회를 순복음춘천교회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지역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유치를 위한 춘천범종교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 유진형 목사)를 결성하여, 10월 28일(월) 오후 7시 춘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에도 11월 27일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주도하여 혁신도시유치를 위

한 연합예배를 드리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5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9. 25-27, 강사 : 장경동 목사, 장소 : 석사감리교회)를 개최하였는데, 연인원 약 6만 명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C.C.C.총재 초청 "춘천성시화 일일특별성회"

2005. 10. 28 (순복음춘천교회)　　강사 : C.C.C. 총재 김준곤 목사







2005년 선교대회

2005. 9. 25~9.27 (석사감리교회)　　주강사 : 장경동 목사



전국 성시화운동 임원 세미나(2007. 6. 8 석사감리교회)





춘천성 시화연합 선교대회(2005. 9. 25-9. 27 석사감리교회 강사 : 장경동 목사

(6) 2006년(성시화운동, 21세기 기독교 세계선교운동으로 도약)

세계선교의 영적지도자 '루이스 부쉬' 목사가 성시화와 도시변혁선교의 긴밀한 협력과 연구를 위한 국제회의를 논의하기 위해 춘천을 방문했다(5. 26-31). 루이스 부쉬 목사는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로잔대회에서 가장 미복음화된 지역인 10/40창 지역개념을 소개하고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을 전개하였는데, 21세기 선교운동으로 2004년 세계변혁선교운동을 시작하였다. 루이스 부쉬 목사는 춘천성시화국제대회를 제안하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이 보다 규모있는 영역선교로 발전하고, 동시에 국가적, 국제적 네트워크에 유기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는 인도가나안농군학교 설립을 위해 인도 비하르에 두 번(2. 24-28/3. 24-30)에 걸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압둘깔람 인도대통령과 인도 비하르주의 주수상 등을 만나 인도개발을 위한 한국의 가나안농군학교의 역활 등을 논의하였다. 이밖에도 춘천성시화를 위한 춘천홀리클럽 10주년 축제(2006. 6. 9, 장소 : 춘천안디옥감리교회, 강사 : 오정현, 명성훈 목사)와 춘천성시화선교대회(2006. 10. 8-11, 장소 : 석사감리교회, 강사 : 이동현 목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1기 성시아카데미(2006. 3. 21-6. 20, 매주 화요일 저녁 7:00)가 개최되어 성시화를 위한 요원양성을 하였다.

부활절 연합예배

2006 춘천시청 광장





(7) 2007년(춘천, 다가올 통일한국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서다)

2007 영역별 통일한국 춘천대회(2007. 7. 24-28, 장소 : 춘천강원대캠퍼스, 주최 : 성서한국. 공동주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기독교연합회, 강원대교수선교회, 기독청년포럼)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이 있는 기독청년 학생을 초청하여 개최되었다.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과 북한문제 전문가 수십 명이 통일한국의 비전과 준비를 위한 실천분야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로 춘천은 다가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중심도시라고 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지속적인 기도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일을 위한 화요기도모임(주관 : 통일나눔터)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춘천사랑 십자가 평화대행진이 4월 6일(금) 오후 7시 삼천동 시민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약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십자가 행진이 끝난 뒤에는 춘천시가 내려다보이는 봉의산에서 성령집회가 진행되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들고 아름다운 호반 춘천이 생명과 복음의 중심지가 되기를 뜨겁게 기도하였으며 4월 8일(주일) 오전 5시 시청광장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렸다. 또한 '살기좋은 춘천, 시민과 함께 하는 춘천선교대회'(9. 2-8, 강사 : 장경동 목사)가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다채롭게 열렸다. 선교부흥회와 영역별변혁운동세미나, 기아체험난민걷기대회(주관 : 월드비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발대식 : 삼천동 시민공원 야외음악당(2007 십자가 대행진)

2007 춘천사랑 십자가 평화대행진



십자가 행진(삼천동-도청)
연합회 장 이원호 목사









시가지 행진







십자가 행진을 마치고 봉의산 시민공원에서 춘천성시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구호 외침

부활전연합예배(4.8)





시민과 함께한 선교대회(9.2~9)





시민과 함께한 선교대회(9. 2~8)





춘천교회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 -추위를 무릅쓰고



영역별 반핵운동 세미나(한림대 국제회의실)

기아체험 난민돕기 걷기대회











(8) 2008년(성시화운동의 확산과 완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성시화운동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시화운동을 확산시키고, 성시화운동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에게 성시화 정신을 전수하는가에 달려 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2006년에 이어 제2기 성시아카데미(2008. 4. 7-6. 23, 매주 월요일 저녁 7:00)를 개강하였다. 강사로는 지역별 성시화운동지도자 및 통일(전 청와대 배기찬 비서관), 북한문제(예수원 벤토레이 신부) 전문가들을 초빙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대 다음 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선교, 교육, 문화탐방 프로그램인 청소년비전캠프(2008. 8. 4-12, 장소 : 중국 대련, 단동, 백두산)를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청소년비전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독립운동 유적지 방문, 단동가나안농군학교 영성훈련, 조선족교회 방문, 접경지역 경험, 백두산 등정 및 고구려유적지 방문을 통하여 다음 세대 성시화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기도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기독교연합회에서는 춘천선교대회 부흥성회(2008. 10. 5-8, 장소 : 평화감리교회, 강사 : 오정호 목사)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성시화운동의 부흥을 도모하였다. 선교대회와 함께 '하나의 비전, 하나의 운동' 이라는 주제로 성시비전포럼(2008. 10. 9 오전 10:30)의 시간이 있었다. 포럼위원으로 참여한 강사들은 지역의 성시화운동 사례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협력과 활성화 방안, 극복해야 할 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또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성시주일지키기운동(성시화의 달, 10월 첫째 주일)을 주창하고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 성시신문 편집위원회에서는 기독교문화의 정착을 위해 성시신문에 소개되는 기독영화를 매월 1회 상영하기로 하였다(첫 상영 : 2008. 4. 17(목) 저녁 7:30, 영화 : 새도우 랜드).

(9) 2009년(기도로 이루어가는 성시춘천, 세계인의 주목을 받다)

성시화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이다. 성시화는 겸손하고 간절한 무릎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춘천연합중보기도네트워크(CCPN)를 결성하여 성시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운동(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1:00, 장소 : 유스아트홀)을 전개하였다. 또한 중보기도 가이드 책과 영적지도를 활용하여 춘천의 주요지역을 방문하여 땅밟기 기도를 전개하였다. 또한 성시화 모델도시로서 의미가 있는 십자가 나무인 산딸나무를 성시목으로

지정하여 희망(예수님)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세계도시변혁운동을 이끌며 춘천을 방문하였던 탐 빅터, 루이스 부쉬 목사의 초청으로 두 번에 걸쳐 대표단을 파견(2009. 4. 21-24, 장소 : 미국 휴스턴/2009. 9. 8-11, 미국 뉴욕), 춘천성시화운동을 소개하여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았다. 대표단의 미국방문이 계기가 되어 미국 한인 교회인 필그림교회(미국 뉴저지 주) 청년들이 춘천을 방문하여 'AWANA(어와나) 영어 성경 캠프(2009. 8. 3-6, 장소 : 효자감리교회)'를 춘천지역 교회와 연합으로 진행하였다. 필그림교회 청년들의 방문으로 춘천은 성시화운동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긴밀하게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인도 정의당 대표 '우딧 라지(인도의 최하층 천민인 달릿〈Dalit, 불가촉천민〉의 권리옹호를 추구하는 인도 정의당의 창당대표)'가 춘천을 방문(2009. 11. 2)하여 인도의 발전과 불가촉천민에 대한 권리옹호에 협력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다. 춘천홀리클럽 창립 13주년 성령대부흥회(2009. 6. 14-17, 장소 : 안디옥감리교회, 강사 : 김홍도, 김삼환 , 손기철, 전용태, 최호자, 최재선)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산딸나무(십자가 나무)를 성시목(聖市木)으로 심는 임원들







부산성 시화운동 본부와의 교류협 력



부산성 시화대회 참관





춘천 · 부산성시 화운동 전략회 의

(10) 2010년(성시화운동은 지역을 섬기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2010년 들어 춘천시민과 함께 한 행사로 91주년 3 · 1절 기념 연합예배(2.28, 중앙감리교회)에 한국 최고 원로목사이신 방지각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했으며, 3월 24일(수) 오전 7시 김승규 장로 초청 "이슬람교의 세계화전략과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 4월 3일(토) 오후 2시 "춘천사랑 십자가 평화대행진", 4월 4일(주) 오전 5시 부활주일 연합예배(시청광장), 4월 22일(목) 창조과학세미나(중앙감리교회), 6월 19일(토) 오전 7시 "6 · 25 60주년기념 민 · 군 연합 조찬기도회"(2군단 한빛교회)가 펼쳐졌다.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누룽지와 위생대(여성용)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진으로 절망에 빠진 아이티 지역주민들을 돕고자 모금하여 전달하였다(대표단 아이티방문 : 6. 22-7. 2). 세계선교를 위한 이슬람선교학교 운영(4. 5-5. 24, 매주 월요일 저녁 7:00), 세계선교의 날 춘천선교대회(9. 28, 오후 4:00-9:00, 장소 : 동부교회), 제4회 한 · 일사회문화이해 국제학술대회(10. 30, 오전 10:00, 장소 : 강원대학교, 주관 : 사회문화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추진, 협력하였다. 국가번영과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8 · 15 미스바구국기도회(8 · 15, 오후 6:30, 장소 : 호반체육관, 강사 : 김동길, 주관 : 춘천교역자연합회), 평화통일포럼(8. 16, 오전 10:00, 장소 : 평화감리교회), 통일을 위한 기도의 날(10. 24, 오후 7:00, 장소 : 거성침례교회, 강사 : 허문영)을 개최하였다. 춘천성시화를 위해 춘천홀리클럽 제14주년 부흥회(6. 6-9, 장소 : 석사감리교회, 강사 : 이영훈, 명성훈, 주성민, 유기주)를 열었다. 성시화운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부요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와 경기대회(2010. 8. 28-9. 5)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였다.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 발대식(8 · 25, 오전 10:00, 장소 : 춘천중앙감리교회)을 갖고 총회와 경기대회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성경책(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제공하였다.

2010.4.3춘천시청광장에서 행한 십자가 퍼포먼스



3.1절 예배(2. 28)



이슬람교 특강(3. 24)





십자가 발대식(4. 3)





6 · 25 60주년기념(6. 19)

8 · 15 기도회(8. 15)

2010 춘천성시화운동 사역을 마무리하는 2010 춘천성시선교대회(10. 3-6, 장소 : 신성감리교회, 강사 : 정성진), 춘천사랑 성시비전포럼(10. 5, 오전 10:00)을 개최하여 많은 성도들의 참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 창립총회(9. 8, 오전 7:00, 장소 : 신성감리교회)'를 개최하여 초대이사장으로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 담임)와 부이사장으로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을 추대하였다.

2010 춘천성시화 선교대회(10. 3-6)





강사 : 정성진 목사





성시화 비전 포럼(10. 5)

거리전도



결단식



새 명동거 리



삼천동 어린이 회관

「춘천성시화운동의 회고와 전망」



문선재 목사(전 강원대학교 총장)

1) 춘천을 제2의 종교개혁도시 제네바로

"호수와 안개에 둘러싸인 벽지촌, 높은 산과 가파른 언덕길, 척박한 땅 산간지 '제네바' 를 부요하고 평화스런 세계의 낙원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곳 사람들의 '신앙' 과 신용이었다. 이 믿음과 근면을 심은 사람이 '파렐' 이요, '칼빈' 이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그들 선각자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던 '복음' 이다.

"가난한 안개의 도시 춘천에도 '복음' 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복음' 전하기, '믿음' 심기, '믿음' 가르침, '믿음' 실천하기 운동이 꾸준하게 어떤 곤경에도 굴하지 말고 실망치 않고 전개되어야 한다."

1970년대 초에 제가 호반도시 춘천에 와서 시작한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당시 서울-춘천간 도로는 2차선으로 된 아스팔트도 아닌 자갈길 신작로였습니다. 의암댐 입구에는 군인이 보초를 서고 의암교를 버스로 건너 춘천으로 들어가려면 가파른 절벽 아래 검푸른 호수가 안개와 함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있는 것은 수려한 경관뿐인 그런 폐쇄도시였습니다. 춘천의 교계에서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평신도들이 모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 는 이 기도를 춘천의 모든 교회에 퍼져 나가게 했으며, 72년에는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춘천성시화운동' 의 이름으로 일만 명 집회를 C.C.C.의 도움을 받아 치루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의 일입니다.

2) 입체적인 복음화의 5색의 도시화

이 운동을 회고할 때 잊을 수 없는 일은 C.C.C. 총재이시면서, 성시화운동의 총재로 이 일에 전념하시던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시화운동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 직접 춘천에 내려오셔서 교회들을 방문하여 춘천성시화의 비전을 심고 주도적으로 이 운동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는 춘천의 제2의 종교개혁도시 제네바화를 위하여 한 상징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작성한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를 읽어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감회를 새롭게 맛보기 위하여 이 '노트'의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놓기로 하겠습니다.

※ 목표와 목적

❶ 심령마다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그리스도의 사람)

❷ 춘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그리스도의 도시)

❸ 완전 그리스도화된 도시를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에 이식시키기 위하여

❹ 제2의 기독교문화의 발상지,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종교개혁도시 제네바화를 위하여, 제2의 그리스도 문화의 상징적인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❺ 민족복음화의 전략도시화를 위하여

❻ 입체적 전인 복음화의 5색의 도시화

가) 공부하는 도시(전 시민 학도화)

ㄱ. 지성인의 도시

ㄴ. 진리의 도시

ㄷ. 교육의 도시

ㄹ. 자유의 도시

ㅁ. 생각하는 도시

나) 아름다운 도시(전 시민 예술인화)

ㄱ. 예술의 도시

ㄴ. 음악의 도시

ㄷ. 문예도시

ㄹ. 미의 도시

ㅁ. 호반의 도시

다) 체육의 도시(전 시민 체육인화)

ㄱ. 건강한 도시

ㄴ. 밝은 도시

ㄷ. 강한 도시

ㄹ. 협심하는 도시

라) 기술의 도시(전 시민 기술자화)

ㄱ. 일하는 도시

ㄴ. 생산의 도시

ㄷ. 풍요의 도시

ㄹ. 창조의 도시

ㅁ. 정밀기계의 도시

마) 거룩한 도시(전 시민 신자화)

ㄱ. 사랑의 도시

ㄴ. 소망의 도시

ㄷ. 믿음의 도시

ㄹ. 기도의 도시

ㅁ. 성서의 도시

❼ 춘천시의 모든 것을 시범화하기 위하여

가) 시범교회

나) 시범학교

다) 시범관청

라) 시범상점

마) 시범소비조합

바) 시범단체

사) 시범가정

아) 시범식당

자) 시범환경미화

차) 시범풍속

이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30여 년 전에 꿈꾸던 것이 이 시대에도 하나의 지표로 우리를 깨우치는 바가 큽니다. 당시 성시운동의 대전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❶ 사도행전 운동으로 성령, 전도, 말씀, 기도, 믿음, 사랑으로 시종일관한다.

❷ 이 운동은 근본적으로 복음화운동이다. 사람이 예수로 새로워지면 가정과 도시와 국가가 새로워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3) 춘천성시의 미래상 투시도

당시의 성시화운동의 1세대들이 그렸던 미래상 투시도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대로 여기에 옮겨 놓습니다.

❶ 성시성회가 연중무휴로 열리고, 세계적 명물로 등장할 것이다.

❷ 풍치관광보다 성시관광이 유명해진다.

❸ 성시 이주자가 전국에서 모여들 것이다.

❹ 성역화된 춘천에는 술집, 거지, 도둑, 뇌물, 부정부패, 퇴폐풍조, 불신풍조, 미움, 폭행 등 일체의 사회악이 자취를 감춘다.

❺ 초 · 중 · 고 · 대, 신학교, 의과대학 등 세계 수준의 특수학교가 즐비할 것이다.

❻ 도시환경은 완전히 상록수와 화초로 단장된 푸른 도시, 꽃의 도시가 될 것이다.

❼ 각종 시민 복지시설은 물론 이상적인 신용조합, 소비조합,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시민생활은 어느 곳보다 편리해질 것이다.

❽ 시민은 신자가 되느냐 이주하느냐 양자택일을 할 것이다.

❾ 학교는 주일학교화되고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화되고, 학구는 교구화되며 춘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성서와 성령에 의해 다스려진다.

❿ 비로소 하나된 교회가 생길 것이다.

⓫ 진정한 제2의 예루살렘, 세계의 성도가 될 것이다.

⓬ 국내뿐 아니라 국제행정 시찰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⓭ 스위스보다 특수전자공업 같은 것이 발전할 것이다.

⓮ 종교도서 출판, 성구 수출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⓯ 국제 기독교단체들의 원조와 특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등이 빈번할 것이다.

⑯ 성시 특별보호법안 같은 것이 국회에 통과되어 시정은 장로급 인사가 영도하는 시민회의에서 다스려지고 관공서의 수가 반감될 것이다.

⑰ 시 예산의 십일조는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쓰일 것이다.

⑱ 춘천시는 20세기 후반의 인류의 신화로 각광을 받게 된다.

⑲ 완전 자유시가 될 것이다.

⑳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GNP가 3배쯤 높아질 것이다.

㉑ 세계최고의 신학교와 간호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음악대학, 체육대학, 성서대학, 교육대학 등이 생긴다.

㉒ 한국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 복지센터, 요양원, 별장지대가 생기고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부요한 크리스천의 은퇴도시이기도 할 것이다.

㉓ 성시봉사단이 생긴다.

㉔ 새 도시계획에 의한 신시가지가 생긴다.

이런 꿈들을 30여 년 전에 춘천의 신앙 1세대들이 꾸었고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대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춘천은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로는 처음 '성시화운동'이 일어난 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4) 성시화운동의 발전과 확장

1972년 춘천의 지역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의 연합으로 열린 춘천성시화운동(주강사 : 김준곤 목사)은 그후에 많은 타도시에 영향을 주어 전국의 지역복음화 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 가는 듯 했으나 1992년에는 춘천의 직장선교연합회 주관으로 성시화운동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주강사 : 정근모 장관). 이 집회를 2년마다 갖기로 하고 1994년에는 기윤실과 기학연이 공동으로 '복음화 춘천 94' (주강사 : 김진홍 목사)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초 일주일 간은 춘천복음화 운동주간으로 설정하여 신앙 2세대들이 이 운동을 계승해서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지역복음화를 위해 계속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조직정비가 필요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성시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는 목

회자들이 모이고, 이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홀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목사님들의 뜻을 받들어) 일을 실제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맡게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이 조직은 상생관계를 잘 유지해왔으며 크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 운동은 48개 도시와 6개국에 확대되고 지역복음화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성시화운동의 총재로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인천국제성시화축제'를 주관하시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의 탁월한 지도력과 성시화운동에 대한 열정은 이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용태 검사장과 양인평 법원장의 열정은 그들이 부임하는 도시마다 성시화운동을 일으키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홀리클럽'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며 지금은 변호사로 계시지만 실제적인 성시화운동의 주역들입니다. 성시화운동에서 이들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성시화운동을 힘차게 이끌어 오신 지도자 김준곤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이 운동을 다시 회고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도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성시화운동의 회고와 전망

성시화운동의 발원지로서의 춘천은 지금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오랜 숙원이었던 경춘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복선전철이 개통되고, 서울-춘천 간을 40분대로 왕래할 수 있는 고속전철도 운행됩니다. 서울과는 통근거리로 가까우면서도 서울의 공해와 차단된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쾌적한 녹색의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는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 살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좋은 공기와 물,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지금 춘천에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바이오 항체연구소를 비롯하여 여기에 관련된 무공해 첨단 기업들이 클러스터(cluster)

를 형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메카를 이룰 것입니다. 강원대학이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비로 이미 600억 원을 확보했다는 기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5개 종류의 바이오 항체 의약을 개발할 목표로 연구가 구체화되고 있는 줄 압니다. 무공해 바이오 항체 의약을 개발함으로써 춘천시의 소득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병행하여 성시화운동도 그 패러다임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넓혀야 하리라고 봅니다. 춘천을 복음화할뿐 아니라 복지화하는 데 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전도' 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복지' 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때 이 운동은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세 가지로 집약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시화운동이 전 시민들의 '잘살기 운동' 으로까지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이상촌운동이 새마을운동의 동인으로 작용했듯이 춘천성시화운동도 춘천 시민들의 잘살기 운동으로까지 접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살기 좋은 도시를 뽑아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춘천시 의회와 성시화운동의 주역들이 협동해서 세계에서 가장 사람살기 좋은 도시로 목표를 세워보는 일도 재미있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이 이런 꿈을 심는 데 기도와 힘을 모은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시화운동은 좋은 평가를 받기에 좋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춘천시의 발전계획의 중요목표(장 · 단기 계획)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호로만 그치는 운동이 아니라 실제로 계획되고 예산까지도 확보된 운동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춘천시의 '잘살기 운동' 에서도 '성시화운동' 의 비중을 높이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실제로 '복지 춘천' 을 이루어 내는 데까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운동에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해냄으로써 운동의 계속성과 정체성을 유지

하게 하여 가칭 성시화운동 수련원(관)이 개설되어야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사람' 이 제일 중요합니다. 춘천시의 신도들뿐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 운동을 받아들여 지역 복음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48개 도시와 6개국의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이 수련원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면 춘천 성시화운동 본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7년 전에 꿈꾸던 '제2의 종교개혁도시 제네바로' 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복지도시 춘천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와 말씀,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21세기에 세계에 선보이는 시범도시 춘천을 만들어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5. 춘천성시화운동의 내일
– 의미, 비전 그리고 미래

춘천은 성시화의 고장이다. 1972년 춘천에서 성시화운동이 일어나고,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상설기관으로 창설된 이후, 현재 성시화운동은 50여 국내 주요도시 – 청주·대전·부산·서산·당진·포항·광주·홍성·예산·전남·보령·태안·서천·천안·용인·대구·전주·목포·군산·울산·완도·구미·충주·김제·평택·원주·의정부 등에 확산되어 지역 성시화운동본부가 창설되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해외 20여 개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어 활동 중이며, 2010 과테말라 국제성시화대회 이후 성시화운동이 중남미와 유럽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성시화운동이 가지는 선교적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향후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시화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두 지체를 세워주셨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은 성시화운동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가는 도시에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맡겨주신 소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

(1) 성시화운동의 의미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시화운동을 일으키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알게 된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성시화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국내와 해외의 각 도시로 확산되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기독교 세계선교운동으로서 성시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성시화운동의 비전과 방향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 천국공동체의 모델도시를 세우는 운동

성시화운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공동체의 작은 모델을 세우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방법으로 지금도 복음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성시화운동은 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1)]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2)]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한 민족 이스라엘이 자기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죄에 빠진 인류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한 사회의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이렇듯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다. 이스

---

1) 춘천성시화운동을 주창하셨던 김준곤 목사는 이러한 성시화에 대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강조하였다. "존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 조그마한 호반의 도시 제네바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제정한 제네바는 지금 전 세계의 평화를 논하고 인류의 운명을 논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물론 종교의 거룩한 도시지만 제네바는 종교 개혁을 했던 존 칼빈이 한 도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성시화의 모델 도시입니다. 현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도시 전체를 거룩한 도시, 성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 50% 이상 되면 '정신적 인프라 기본 구조'(예수를 주라고 불러본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 30% 이상 되어 정신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부흥은 경제 부흥도, 민주화도, 근대화도 가능케 하는 바탕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시범도시, 샘플 도시가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준곤(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편)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 (서울 : 신앙계, 1997). pp.30-31

2)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1-3).

라엘은 온 세계에 대하여 잃어버린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모델 사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3]

성시화운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대안사회를 만드는 모델도시 운동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작은 천국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2) 영역선교를 통한 총체적 일터선교 운동

성시화운동이 다른 선교운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혼 구원만이 아닌 총체적 일터선교운동이라는 점이다. 김준곤 목사는 춘천성시화운동 노트에서 성시화운동의 목표와 목적을 "입체적인 전인복음화와 5색의 도시화"[4]로, "춘천시의 모든 것을 시범화하기 위하여"[5]라고 정의하였다. 춘천에 속한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문화로 변화되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 아래 1972년 초기부터 일관되게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도시의 환경지수, 도덕지수, 과학지수, 기술지수, 건강지수, 청결지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병행되었다. 이에 진일보하여 선교를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영역 선교로 이해하고[6] 개개인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설립되고 춘천성시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재점화한 1996년 이후부터는 성시주간을 선포하고 저녁 말씀사경회와 부흥집회를 개최하면서 한 주간 동안 각 영역

---

3) 이영길(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편),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서울 : 신앙계, 1997). p.47.

4) (6)입체적 전인복음화와 5색의 도시화 : 1)공부하는 도시(전 시민 학도화). 2)아름다운 도시(전 시민 예술인화). 3)체육의 도시(전 시민 체육인화). 4)기술의 도시(전 시민 기술자화). 5)거룩한 도시(전 시민 신자화).

5) (7)춘천시의 모든 것을 시범화하기 위하여 : 1)시범교회. 2)시범학교. 3)시범관청. 4)시범상점. 5)시범소비조합, 협동조합. 6)시범단체. 7)시범가정. 8)시범식당. 9)시범환경 미화. 10)시범풍속.

6) 최상도, "지구촌 성시화 모델 도시 춘천의 의미와 과제(춘천시랑 성시비전포럼)"(춘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010), p.7.

의 기관, 단체, 사업장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3) 세계선교를 위한 전략적 선교도시 운동

성시화운동은 시작부터 선교적 사명을 위해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운동이었다. 김준곤 목사는 성시화운동의 목표와 목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화된 도시를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에 이식시키기 위하여"라고 강조하였다.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춘천의 지역교회는 계속적으로 세계선교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춘천 출신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혹은 선교단체의 지도자로서 세계선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7] 춘천성시화운동은 타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교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성시화운동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은 춘천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춘천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춘천은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시화운동을 일으키신 곳이다. 다가올 민족의 통일을 바라보며 민족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며 미완성의 과업인 세계선교가 완성되는 날까지 전략적 선교도시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한다.

(2) 성시화운동의 3대 비전과 5대 과제

위와 같이 성시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선교적 의미는 21세기 세계기독교선교운동으로서 성시화운동이 나아가야 3대 비전과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3대 비전

- 생명운동: 전 도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풍성하신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천국공동체의 모델도시를 추구하는 비전

7) 예를 들어, 춘천 예수제자운동(대표 : 윤태호)은 춘천에서 시작된 캠퍼스 선교운동으로 시작하여 현재 국제적인 선교사 파송 훈련기관이 되었고, 베드로선교센터(대표 : 조은제)는 춘천지역의 선교동원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 후원, 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 문화운동: 총체적 일터선교운동으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문화의 열매가 풍성한 문화도시에 대한 비전
- 선교운동: 열방을 치유하는 도시로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략적 선교도시에 대한 비전

2) 5대 과제

성시화운동의 3대 비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5가지 과제가 있다. 춘천성시화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해야 할 5가지 과제 – 연구, 교육, 협력, 소통, 구조 – 에 집중해야 한다.

① **연구** : 성시화운동을 전개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의 영성이다. 성시화운동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땀과 눈물의 역사이다.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의 사역이 없이는 성시화운동은 감당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러한 기도의 사역과 더불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합리적인 냉철한 이성으로 성시화를 연구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성경과 세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우리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성시화운동 전략을 세워야 한다.

② **교육** : 성시화운동은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시화에 관한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성시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성시화운동의 주역들이 될 다음 세대에게 성시화운동의 정신을 전수해야 한다. 성시아카데미를 통한 단기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기독교대학 내에 성시학과 설립 혹은 성시선교대학원대학교 설립 등과 같은 상설교육기관도 절실히 요구된다.

③ **협력** : 성시화운동은 연합운동이다. 어떤 특정인 한 사람 혹은 한 두 특정 교회나 단체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성시화운동을 추구하는 국내 · 외의 다양한 그룹들과 긴밀하

게 협력하여 세계선교의 완성을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④ **소통** :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협력과 연합은 꼭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성시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소통방법을 연구하여 활용해야 한다. 성시화운동의 진행이나 관련된 사역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는 성시신문, 중요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거나 연구 및 학술논문 등을 소개하는 성시저널, 세계 성시화 관련 기사를 알리는 세계성시방송국 등도 필요하다.

⑤ **구조** : 한 지역에서 성시화운동의 성공 여부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 성시화 된 춘천은 작은 단위에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기독교연합회는 성시화운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의회)을, 교계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교역자연합회와 장로연합회는 성시화운동의 성과를 평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로서의 역할(사법)을, 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은 성시화운동의 손과 발이 되어 실천하는 집행기구(행정)로서 각각의 단체들은 부르심의 고유한 영역을 서로 존중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3) 그 밖의 과제

위와 같은 성시화운동의 3대 비전과 5대 과제가 열매를 맺어 춘천이 성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하기구 및 기관이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가칭), 성시도시체험관(생명), 성시문화원(문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성시선교훈련원(선교), 성시전략 및 목회연구소(성시연구),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시통일연구소(통일), 성시아카데미(성시교육), 성시대외협력 및 국제위원회(협력), 성시신문사 및 성시출판사(소통), 성시시스템연구소(구조) 등. 이러한 기구 및 기관 형성은 이미 형성되어 유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기관과 기

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춘천성시화운동 2020 프로젝트

성시화운동이 풍성한 영적열매를 맺어 춘천성시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2004년도에 2010년까지 기간을 설정, 7개년 중장기 목표[8]를 세우고 성시화운동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춘천성시화운동이 재도약할 수 있는 영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비한 부분에 대한 목표를 재설정하여 10개년 중장기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2차년도(2011-2012)의 중점 : 체제정착, 국제적 교류와 협력 강화
  - 성시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역구조에 대한 연구
  -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홀리클럽의 협력구도정착
  - 다양한 성시화운동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성시학회창립)
  - 성시기금조성, 성시주일지키기, 성시선교대회주간행사 정착
  - 세계성시화선교대회 개최를 통한 성시화 고장으로서의 위상정립

- 3, 4차년도(2013-2014)의 중점 : 기관형성, 복음주의 시민운동 전개
  - 3대 비전과 5대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상설기관 정착
  - 연구/문화 : 성시연구소/성시목회연구소/통일연구소/성시문화원 등
  - 교육/출판 : 성시아카데미/성시선교센터/성시신문사/성시출판사 등
  - 아름다운 시민을 위한 '거룩한시민학교' 개설(춘천시와 협력)
  - 춘천시청 내 교회와 춘천시 협력기관 형성(가칭 : 교시협의회)

---

8) 2004년도에 계획했던 7개년 중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2004)의 중점 : 체제정착(연합회와 협력구도정착, 임원확정, 성시화주간선포, 중보기도의 정착). 2차년도(2005) : 기관형성(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산하 기구의 기관형성). 3차년도(2006) : 프로그램 정착. 4-5차년도(2007-2008) : 성시화운동을 위한 연구와 출판의 진흥). 6-7차년도(2009-2010) : 국제적 교류와 협력.

● 5, 6차년도(2015-2016)의 중점 : 인재양성, 중보기도, 총력전도에 집중
- 성시화를 위한 지도자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성시장학재단설립(각 분야와 영역에서 장학생 선발, 육성)
- 지도자 양성과 비전 제시를 위한 성시포럼(예, 성시정치포럼)
- 24시간 365일 성시중보기도센터 운영(성시기도타워 건립)
- 전략적 총력전도에 집중(시민의 50% 이상 예수제자운동)

● 7, 8차년도(2017-2018)의 중점 : 성시도시 체험, 춘천성시특별자치구
- 완성된 성시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문화체험) 설립
- 성시문화거리, 예수치유거리(명품병원, 건강한 먹거리, 정신 · 몸 치유)
- 세계성시명품도시 선정, 성시평화상 제정
- 세계성시명품도시 탐방(성시투어여행사 운영)
- 춘천성시특별자치구지정

● 9, 10차년도(2019-2020)의 중점 : 성시역사박물관, 세계성시선교대학교
- 세계성시화와 세계선교운동의 중심도시
- 세계성시지도자 양성 및 선교사훈련센터 운영
- 성시선교대학교(대학원) 설립(성시학연구, 지도자 양성)
- 세계성시화총회 및 세계성시화선교대회 개최(2)
- 성시역사박물관, 세계기독교성시방송

(4) 성시화, 위대한 도전의 미래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비유를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비유가 나온다. 예수님은 천국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에 담겨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강조하셨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커서 모든 것이 깃들이며 전부를 부풀게 한다고 하셨다.

성시화운동은 처음부터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깃들도록 시작한 운동이었다. 민족복음화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전에 작은 단위의 도시 춘천이 거룩

한 도시로 변화되는 꿈을 꾸며 시작한 운동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시화는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확산되어간다.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작은 공동체에 임재 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성시화 운동이 추구해야 할 비전이다. 성시화는 결국 한 영혼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며, 춘천에 속한 작은 공동체가 천국공동체로 변화되기를 꿈꾸는 운동이다. 요한 칼빈 한 사람의 변화와 영향력에 의해 영원한 성시화의 모델 도시 스위스 제네바가 태어났고,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의 변화와 영향력이 세속주의에 물든 영국사회를 변화시켰다.

성시화는 이 지상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완전하게 새로워진 거룩한 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에 실현되는 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도전하는 성시화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믿음의 비전이며 순종해야 할 사명이다.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은 거룩한 도시를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도전의 길을 걷게 하신다.

성시화, 그 위대한 도전의 미래는 불가능한 가능성에 오직 믿음의 힘으로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도전하는 사람들의 비전과 열정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고 도시가 거듭나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정리 : 정재호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 늘사랑교회 담임)









홀리클럽

한국홀리클럽은 한국성시화운동에 참여했던 1세대 주자들이 성시화운동의 최종 목적인 시민전도운동에 중점을 두고 결성된 단체로서, 1996년 창립 이후 전도의 사명 외에 학교 폭력 추방,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등 시민사회 정화에 참여해 왔고, 지금은 각 도시에서 성시화 3전운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성시화운동 실행조직의 사명을 지니고 있다.




